연구보고서

직 · 간접흡연의 위해성 및 금연 정보 전달 매체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과 **이도연, 나경인, 황호평**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양지연, Shervin Hashemi, 한원석, 송유진, 임영욱***
대림대학교 교양과 **윤정인**

*교신저자 : envlim@yuhs.ac, 02-2228-1898

초 록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a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서」에서 담배로 인한 폐해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 노출로 인한 2차, 3차 간접 피해로 간접흡연자도 흡연자와 같은 종류의 폐암이나 폐기종 등의 질환 발병으로 인해 비슷한 사망률을 보여 간접흡연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2018년)에서도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에서 흡연 관련 노출 생체지표가 검출되어 간접흡연의 위해성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금연 홍보자료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수준으로 배포되어 간접흡연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개인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금연은 동기부여 즉, 금연의도가 금연 성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간접흡연의 위해성 인지, 스스로 금연 의지가 생길 수 있는 반복적인 금연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잘못된 흡연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대상자별 적합한 직·간접흡연의 위해성을 홍보하기 위해 흡연 위해성에 대한 지식 정도,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수준 및 선호하는 전달 매체 등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는 흡연자 400명(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낮은 흡연자 각 200명), 금연파트너 100명, 청소년 100명에 대하여 2021년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흡연 위해성 인식수준은 총 7점 척도 기준으로 모든 설문 대상자가 6점 이상이었으며 청소년이 제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0.05$). 간접흡연의 위해성 인식수준은 2차 간접흡연은 대상자 중 90% 이상이 인식하고 있었다. 3차 간접흡연은 금연 의지가 낮은 흡연자와 청소년이 '전혀 모른다'로 응답한 비율이 25% 수준이었으나, 대상자 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7$). 단, 흡연자에서 '2차, 3차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금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관련 정보 경험은 '흡연으로 인해 걸리는 질병에 대한 해로운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비흡연자들의 건강에 관한 내용'은 가장 적었다. 또한, 경험한 금연 관련 정보 내용이 '흡연자의 흡연 상태에 맞지 않았음'이 가장 많아 대상자별 적절한 콘텐츠 제작 및 전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간접흡연 정보로는 '간접흡연 영향을 최소할 수 있는 방법',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색어 : 흡연 위해성, 간접흡연, 정보인식차이, 금연 콘텐츠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서」에서 담배로 인한 폐해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 노출로 인한 2차, 3차 간접 피해로 간접흡연자도 흡연자와 같은 종류의 폐암이나 폐기종 등의 질환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하여 간접흡연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1,2].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에서도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에게 흡연 관련 노출 생체지표가 검출되어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금연 홍보자료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수준으로 배포되어 간접흡연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개인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흡연자의 흡연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금연 의지는 높아지고, 낮을수록 낮아진다. 금연 의지가 있더라도 금연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흡연자의 금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 금연파트너의 부재로 금연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금연은 본인의 의지와 더불어 금연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3]. 이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 금연파트너로서 흡연자의 직접흡연 위해성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위해성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전달받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경우, 흡연자, 금연파트너와 구분하고 흡연의 위해성을 알려 흡연의 시작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을수록 습관성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흡연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난 후에는 이미 담배에 중독되어 금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4]. 또한, 주변의 동료나 친구, 가족 내 흡연자가 많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담배를 피우는 형제자매나 부모를 가진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5].

실제 금연 관련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시청각 사업이 대부분이다[6]. 금연은 동기부여 즉, 금연의도가 금연성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바[3], 간접흡연의 위해성 인지, 스스로 금연의지가 생길 수 있는 반복적인 금연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잘못된 흡연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흡연의 위해성과 금연 정책 등을 연구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별 적합한 직·간접흡연의 위해성을 홍보하기 위한 인식조사를 선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를 흡연자, 금연파트너,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각각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대상별 인지 수준과 그에 맞는 전달 매체를 알아보고자 한다.

몸 말

1. 조사 및 분석

1) 대상자 모집

2021년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대상자 총 600명을 흡연자 400명, 금연파트너 100명, 청소년 100명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흡연자는 현재 흡연 중인 대상자를 금연의지가 높고 낮은지 여부에 따라 200명씩 나누고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추이(2019)의 성, 연령 비율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이는 금연의지의 유·무에 따라 금연 성공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6]. 금연의지는 흡연의 위해성을 스스로 인지할수록 높아지므로, 직접흡연과 더불어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통해 금연의지를 높이도록 분석 대상자의 금연의지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금연파트너는 현재 비흡연자로 가족 또는 지인(동료 포함)이 흡연자인 사람, 흡연자의 금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 대상자 100명으로 하였다. 청소년 100명은 17세~19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유·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는 응답자가 직접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대상자별 차이가 있으나 흡연 위해성에 대한 지식 정도, 간접흡연(2차, 3차)에 대한 지식 정도, 희망하는 금연 관련 정보 전달 매체 및 전달 내용을 묻는 문항은 공통으로 포함하였다(표 1).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해 조사 대상자 군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후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흡연자 분석은 금연 의지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고, 세 대상자 군에게 공통으로 질문한 문항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대상군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2.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 각 대상자 군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흡연자의 흡연 기간은 금연 의지와 상관없이 11년~20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

흡연자 중 흡연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금연 시도 경험 여부를 설문한 결과, 금연 의지가 높은 경우는 80% 이상이었으며, 낮은 경우는 60% 이상 수준이었다(표 2). 흡연자의 금연 시도 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방법은 '주위 분들의 지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표 1. 조사 내용

대상자	조사 내용
공통	○ 흡연 위해성에 대한 인식 수준 ○ 간접흡연(2차, 3차)에 대한 인식 수준 ○ 금연 관련 정보 전달을 희망하는 매체 및 전달 내용
흡연자	○ 흡연 행태에 대한 정보 ○ 흡연 욕구에 대한 정보 ○ 금연 시도 경험 및 금연관련정보를 접한 경험 ○ 금연 관련 정보 전달의 문제점
금연파트너	○ 흡연에 대한 인식 ○ 주변 흡연자에 대한 질문 ○ 금연관련정보를 접한 경험 ○ 금연 관련 정보 전달의 문제점
청소년	○ 청소년 흡연에 대한 인식 ○ 주변 흡연자에 대한 질문

표 2.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흡연자(%)		금연파트너(%)	청소년(%)
		금연 의지 낮음	금연 의지 높음		
성별	남	169 (84.5)	175 (87.5)	34 (34.0)	44 (44.0)
	여	31 (15.5)	25 (12.5)	66 (66.0)	56 (56.0)
연령대	만 20세 미만	–	–	–	100 (100)
	만 20~39세	82 (41.0)	86 (43.0)	61 (61.0)	–
	만 40~59세	84 (42.0)	76 (38.0)	39 (39.0)	–
	만 60~79세	34 (17.0)	38 (19.0)	–	–
흡연 기간	1~10년	54 (27.0)	40 (20.0)	–	–
	11~20년	58 (29.0)	64 (32.0)	–	–
	21~30년	57 (28.5)	47 (23.5)	–	–
	31~40년	21 (10.5)	32 (16.0)	–	–
	41년 이상	10 (5.0)	17 (8.5)	–	–
금연 시도	있음	128 (64.0)	178 (89.0)	–	–
	없음	72 (36.0)	22 (11.0)	–	–

'금연보조제'와 '금연 클리닉 등 금연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금연광고'나 '운동' 등을 통해 금연 시도에 도움을 받았다(그림 1).

3) 직·간접흡연의 위해성 인식 수준

직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 수준은 7점 척도 기준으로 모든 대상자가 6점 이상이었으며 그중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대상자에서 '직접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병'에 대한 인식 수준은 폐암과 후두암이 가장 높았으며 그중 청소년이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금연파트너는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 뇌심혈관질환' 및 '천식 발병'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금연의지가 낮은 사람은 '흡연의 위해성'과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병'을 인지하는 수준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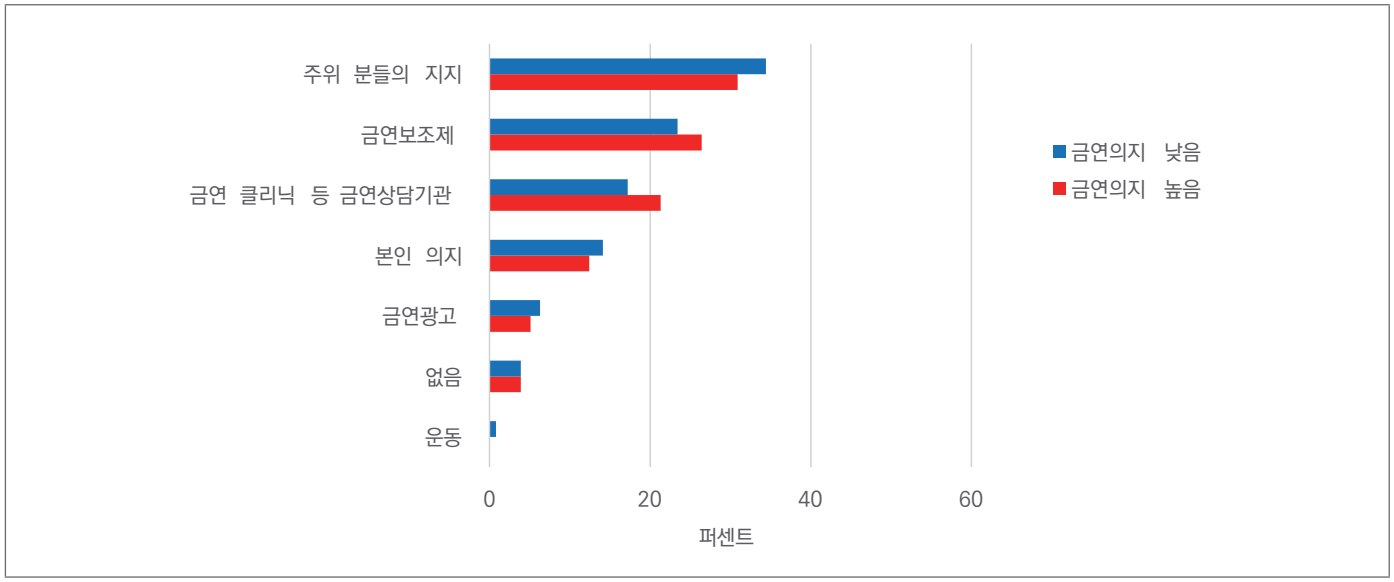


그림 1. 흡연자의 금연 시도 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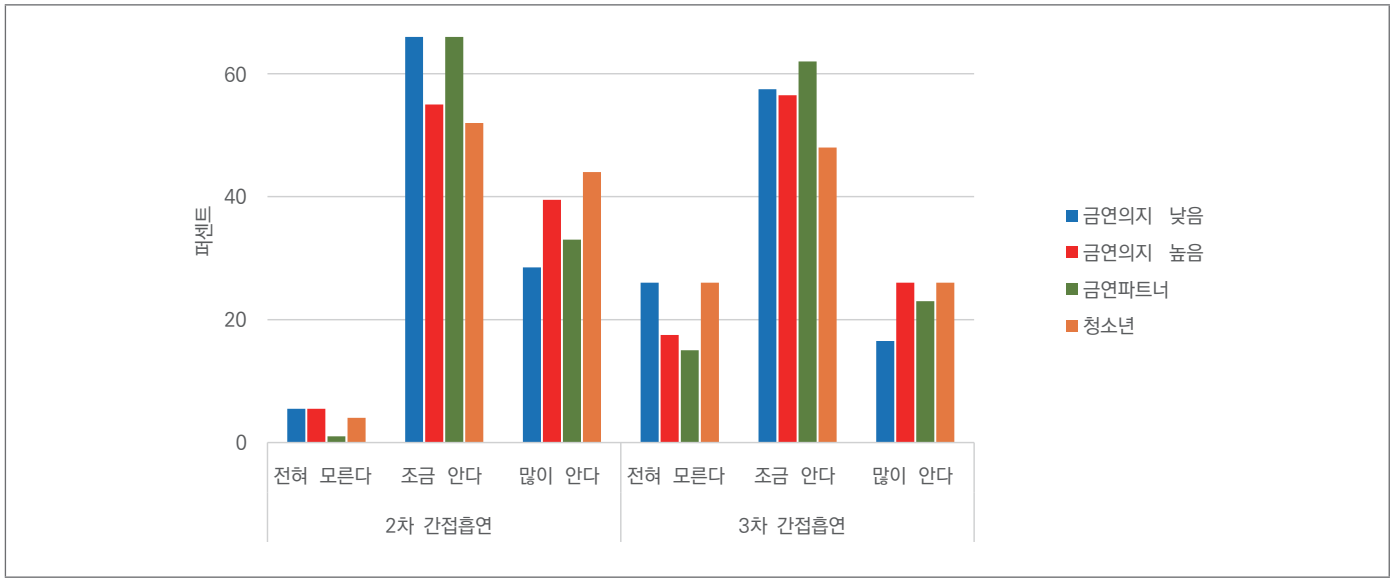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자별 간접흡연 인식 수준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차 간접흡연이란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옷, 피부, 머리카락, 벽, 가구, 침구류 등에 남아있는 담배의 화학적 잔류물들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대상자별 2차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은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대상자가 위해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 3차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금연파트너가 흡연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연의지가 낮은 흡연자와 청소년의 경우, 3차 간접흡연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3차 간접흡연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4) 금연 관련 정보 경험

청소년을 제외한 대상자들이 받아본 금연 관련 정보 내용으로는 '직접흡연으로 인해 걸리는 질병의 해로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비흡연자들의 건강에 관한 내용'은 가장 적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직접흡연의 해로움 인식' 수준이 높은 것과 '간접흡연 위해성 인식' 수준이 낮은 것에 일치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별 금연 관련 정보 전달의 문제점으로 '흡연자의 흡연상태에 맞지 않았음'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뒤이어 '필요할 때 관련 금연 정보 제공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는 것이 어려웠음'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각 대상자별 적절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5) 희망하는 간접흡연 정보 내용

간접흡연의 위해정보에 대해 모든 대상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보다 '간접흡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기를 희망하였다(그림 4). 금연파트너와 청소년의 경우, '간접흡연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희망 수준이 '간접흡연 기인 질병에 대한 정보' 희망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간접흡연 최소화에 대한 관심도가 성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6) 정보 전달 매체 선호도 조사

금연의지가 낮은 흡연자와 금연파트너, 청소년은 정보 전달 매체로 '공익 광고'를 가장 선호하였다(그림 5). 금연의지가 높은 흡연자는 '휴대폰 앱'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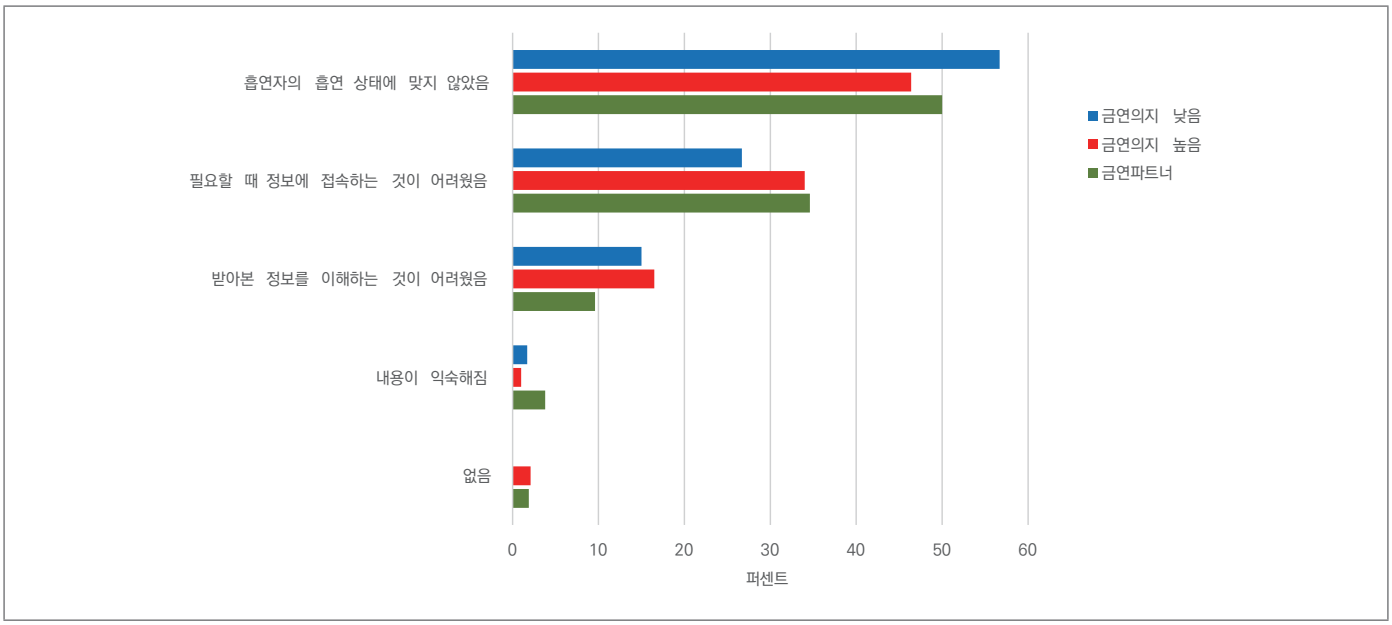


그림 3. 경험한 금연 관련 정보 전달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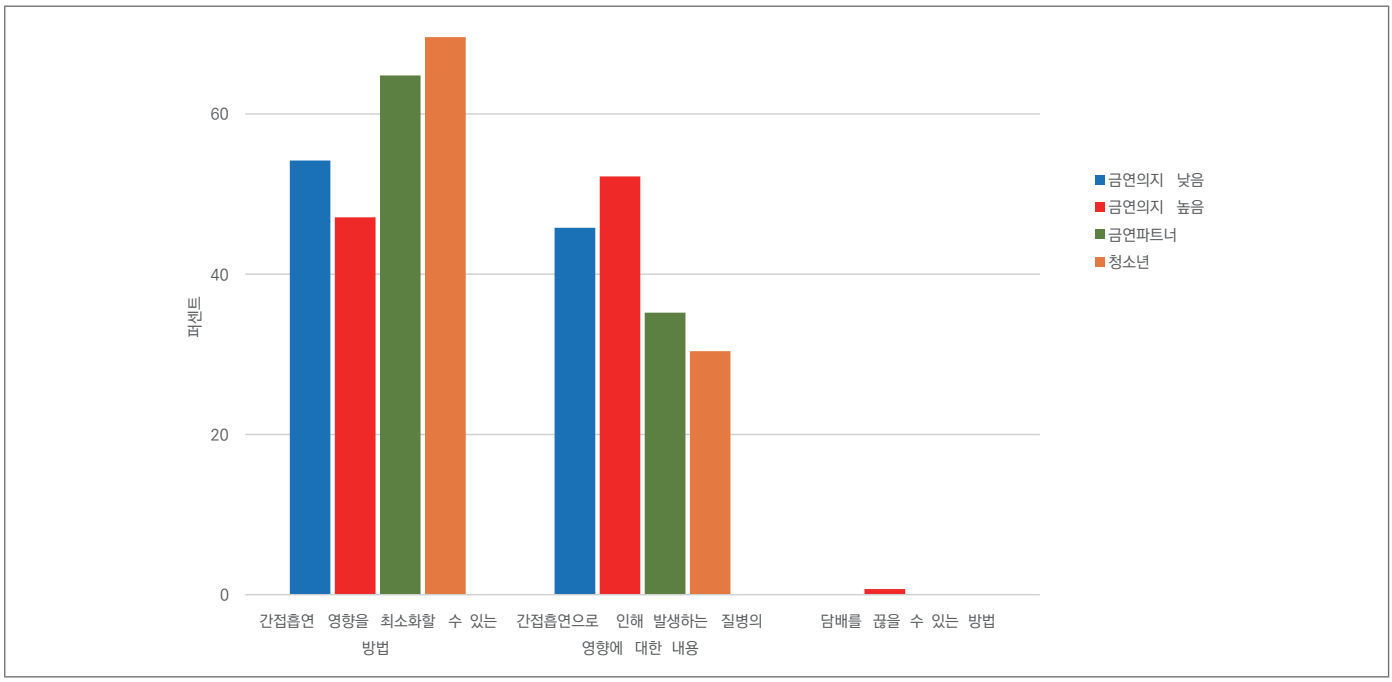


그림 4. 대상자별 얻고 싶은 간접흡연 정보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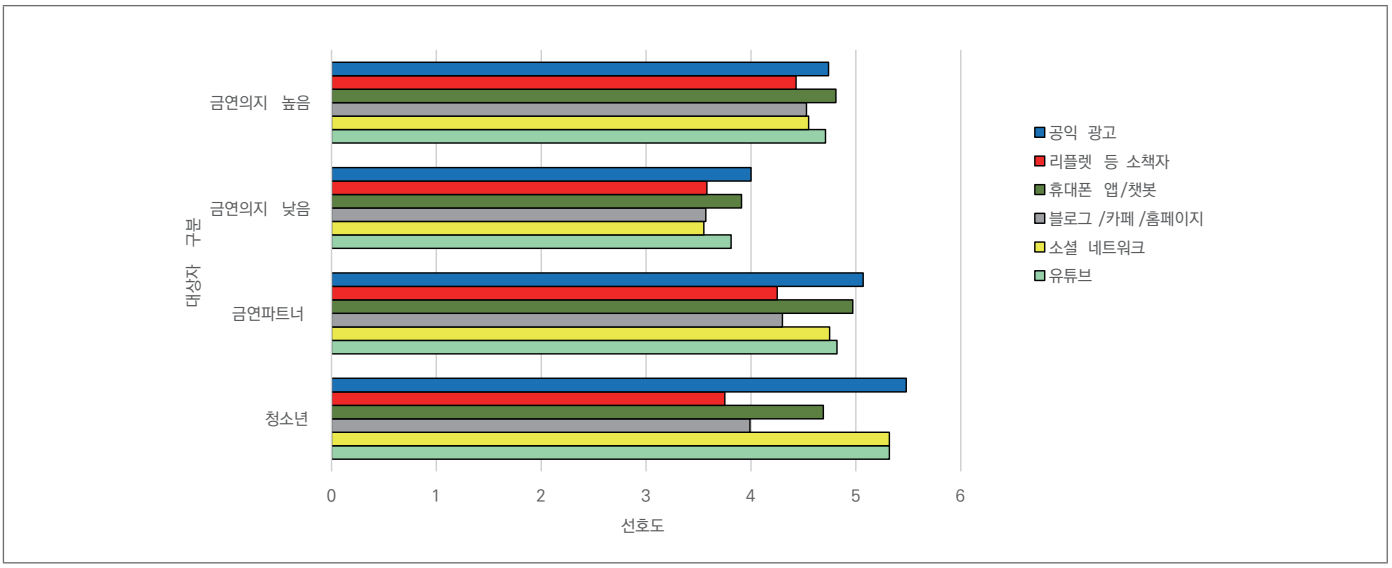


그림 5. 선호하는 정보전달 매체

광고'를 선호하였다. 금연의지가 낮은 흡연자와 금연파트너는 '공익광고'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앱', '유튜브' 등의 매체를 선호하였다. 다만 금연의지가 낮은 흡연자는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에 비해 전체적인 금연 정보 전달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 정보 전달에 대한 선호도가 금연의지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은 주로 '공익광고',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매체를 선호하였으며, 각 대상자별 선호하는 정보 전달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맺는 말

이 조사에서는 흡연자, 금연파트너,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위해성에 대한 지식 정도,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 수준, 정보 전달 선호 매체를 평가하였으며, 각 대상자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 수준은 조사 대상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청소년이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간접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는 대상자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057$) 흡연자에서 '2차, 3차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금연 의지가 높았다. '흡연의 위해성'과 '2차, 3차 간접흡연의 위해성'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정보 노출 빈도가 기존보다 많아진다면 주변인에게 주는 피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금연의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 금연파트너 같은 주변인들의 지지가 금연 분위기나 문화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흡연자와 금연파트너는 지금까지 접했던 금연에 대한 정보가 '흡연자의 흡연상태에 맞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흡연자 개인별 흡연 행태에 따른 흡연 피해 가능성, 맞춤형 금연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흡연 위해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반면 '3차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아 '3차 간접흡연'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간접흡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자 대부분이 금연 정보 전달 매체로 '공익 광고'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여 대상별 구체적인 '위해소통 콘텐츠'를 구성하여 인식 수준을 높여준다면, 금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접근성이 좋은 '휴대폰 앱',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 지속적인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직접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2차, 3차 간접흡연의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금연 홍보자료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위해성을 알리는 정보 수준으로 제공되었다. 따라서 국내 흡연자, 금연파트너, 청소년별 직·간접흡연의 위해성 및 금연 관련 정보의 인식 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대상자별 적절한 금연 정보 제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대상자를 흡연자, 금연파트너, 청소년으로 나누어 인식조사를 한 결과, 흡연자의 금연의지에 따라 금연 시도에 영향이 있으므로 금연 의지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대상자들은 '흡연 위해성'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나 '3차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았다. 금연 성공에 있어 스스로 금연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충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별 적절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금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③ 시사점은?

흡연자, 금연파트너, 청소년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대상별로 다른 인식 수준과 금연에 대한 의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금연 정보 콘텐츠 제작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최은진, 윤시몬, 이난희, 세계보건기구 FCTC 추진에 따른 간접흡연 규제 정책 동향. 보건복지포럼, 2019;275:60–74.
2. 서미경,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1;175:74–83.
3. Kenford, S.L., et al., PREDICTING SMOKING CESSATION – WHO WILL QUIT WITH AND WITHOUT THE NICOTINE PATCH.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4;271(8):589–594.
4. P.Gullotta, C.G.L.T., Adolescent Substance Abuse. Issues in Children's and Families' Lives, ed. H.J.W. Thomas P.Gullotta, Roger P.Weissberg. 2018, Octoer 29, 1983 – February 25, 2018.
5. Mak, K.K., et al., Smoking of Parents and Best FriendIndependent

and Combined Effects on Adolescent Smoking and Intention to Initiate and Quit Smoking.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12;14(9):1057–1064.

6. Luna–Adame, M., T.J. Carrasco–Giménez, and M.d.M. Rueda–García,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based on the 'Life Skills Training' approach. Health Education Research, 2013;28(4):673–682.
7. Jeong SH, Jang BN, Kang SH, Joo JH, Park EC. Association between parents' smoking status and tobacco exposure in school–age children: assessment using major urine biomarkers. Sci Rep. 2021;25;11(1):4536.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regarding risk of smoking and media for smoking cessation

Do-Yeon Lee, Kyoungin Na, Hopyeong Hwang
Division of Health Hazard Respons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Jiyeon Yang, Shervin Hashemi, Wonseok Han, Yoojin Song, Youngwook Lim
Institute for Environmental Researc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Jungin Yoon
Faculty of Liberal Arts, Daelim University College

To encourage smoking cessation and to prevent second-hand tobacco smoke (SHS) and third-hand tobacco smoke (THS), risk awareness levels must be raised. Consequently,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erception level of smoking risk, SHS, THS and media which smokers, smoking cessation partners, and adolescents prefer.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nationwide from May 13 to May 26, 2021. The survey participants included 400 smokers (Two groups of 200 smokers with high and low smoking cessation intention), 100 nonsmokers who were helping at least one smoker aim for cessation (smoking cessation partners), and 100 adolescent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level of smoking risk was over 6-points for all subjects based on a total 7-point Likert scale. Notably, adolescents perceived the highest level of smoking risk ($P<0.05$). The risk of SHS was perceived by 90% of all participants. Despite this high level of perception, 25% of smokers with low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nd adolescents responded 'Knowing nothing at all' about the risk of THS ($P=0.057$). Smokers who highly perceived the "risk of SHS & THS" also had a higher smoking cessation intention. Regarding the experience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information, "Harmful content about diseases caused by smoking" was the most common, and "About the health of non-smokers" was the least common. In addition,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is a need to produce and deliver appropriate content to each target because "Not suitable for smokers' smoking status" was selected the most common experienced information on smoking cessation. Meanwhile, it was found that all subjects wanted to receive "The way to minimize the effects of SHS & THS" and "Effects of diseases caused by SHS" as information on secondhand smoke.

Keywords: Smoking, Risk, Second hand smoke, Third hand smoke, Smoking cessation

Table 1. Description of survey section

Groups of Participants	Description
Common	○ Perception level regarding smoking risk ○ Perception level regarding the risk of second & third-hand tobacco smoke ○ Media & information preferences for receiving information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Smokers	○ Information regarding smoking behavior ○ Information regarding smoking cravings ○ Experiences of trying to quit smok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 Problems of delivering information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Smoking cessation partners	○ Perception level regarding smoking ○ Questions regarding having smokers around ○ Experiences of receiving information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 The problems of delivering information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Adolescents	○ Perception regarding adolescent' smoking ○ Questions regarding having smokers around

Table 2.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pondents in the survey

		Smokers (%)		Smoking cessation partners (%)	Adolescents (%)
		Low smoking cessation intention	High smoking cessation intention		
Gender	Male	169 (84.5)	175 (87.5)	34 (34.0)	44 (44.0)
	Female	31 (15.5)	25 (12.5)	66 (66.0)	56 (56.0)
Age (years)	≤20	–	–	–	100 (100)
	20-39	82 (41.0)	86 (43.0)	61 (61.0)	–
	40-59	84 (42.0)	76 (38.0)	39 (39.0)	–
	60-79	34 (17.0)	38 (19.0)	–	–
Total smoking duration (years)	1-10	54 (27.0)	40 (20.0)	–	–
	11-20	58 (29.0)	64 (32.0)	–	–
	21-30	57 (28.5)	47 (23.5)	–	–
	31-40	21 (10.5)	32 (16.0)	–	–
	≥41	10 (5.0)	17 (8.5)	–	–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attempt	Yes	128 (64.0)	178 (89.0)	–	–
	No	72 (36.0)	22 (1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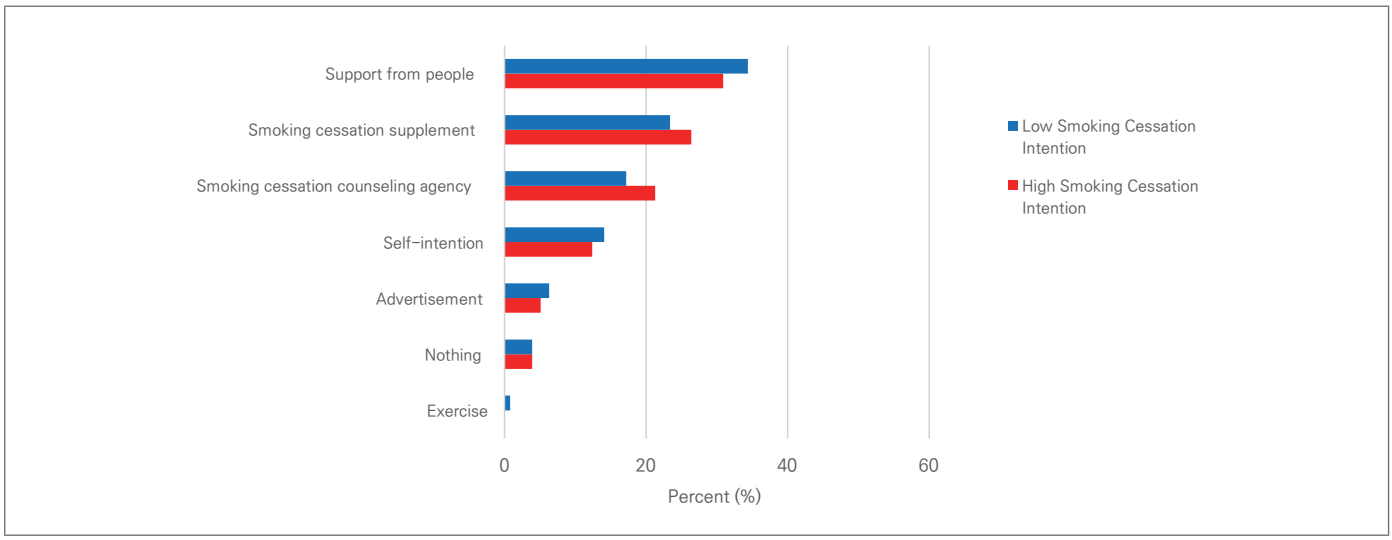


Figure 1. The most helpful way for smokers to attempt smoking ces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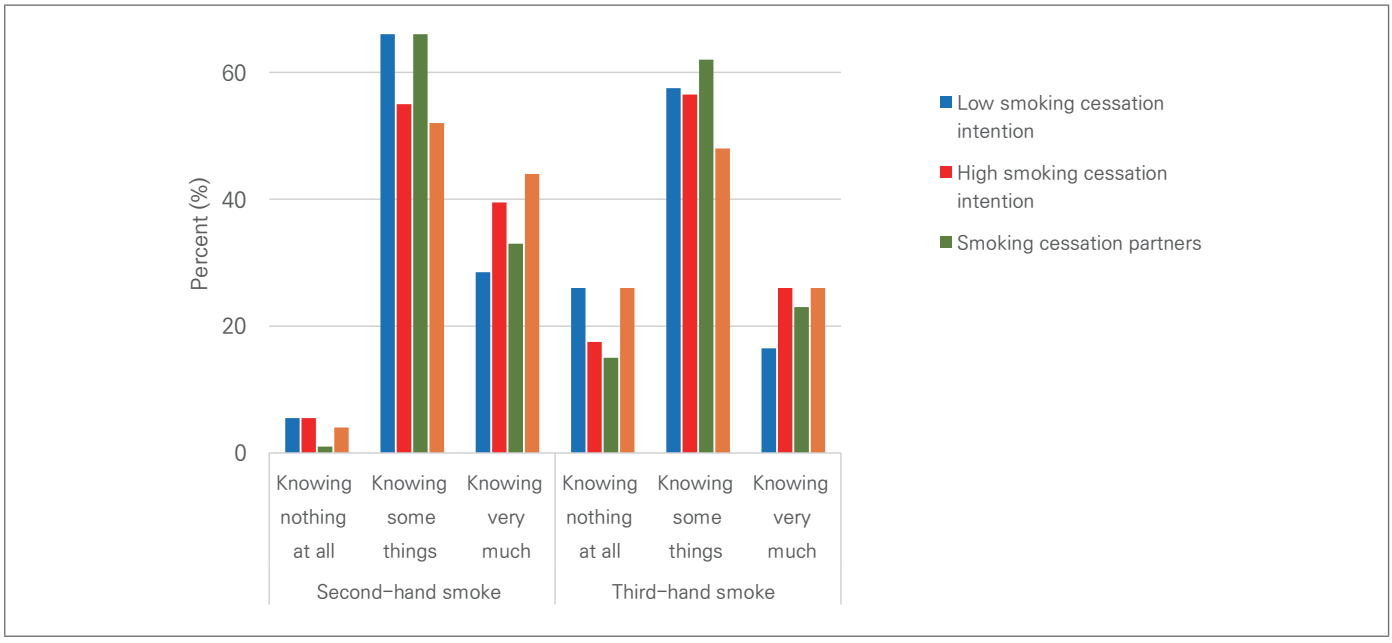


Figure 2. The perception level regarding second-hand tobacco smoke (SHS) and third-hand tobacco smoke (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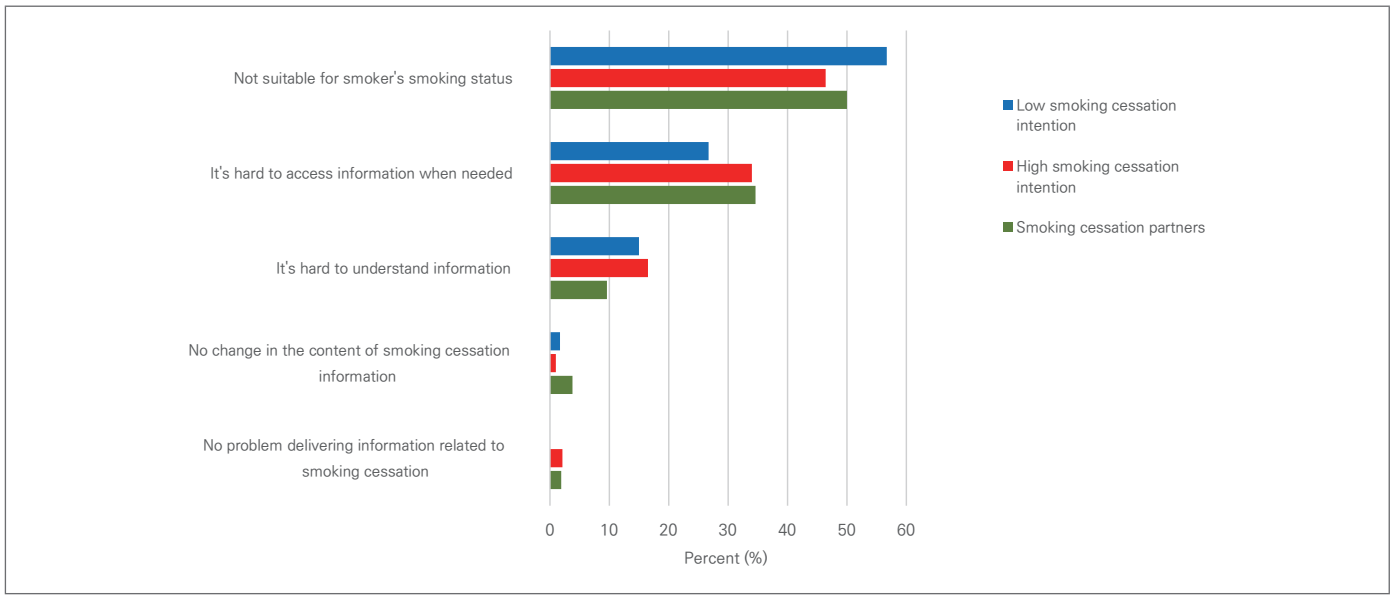


Figure 3. The problems of delivering information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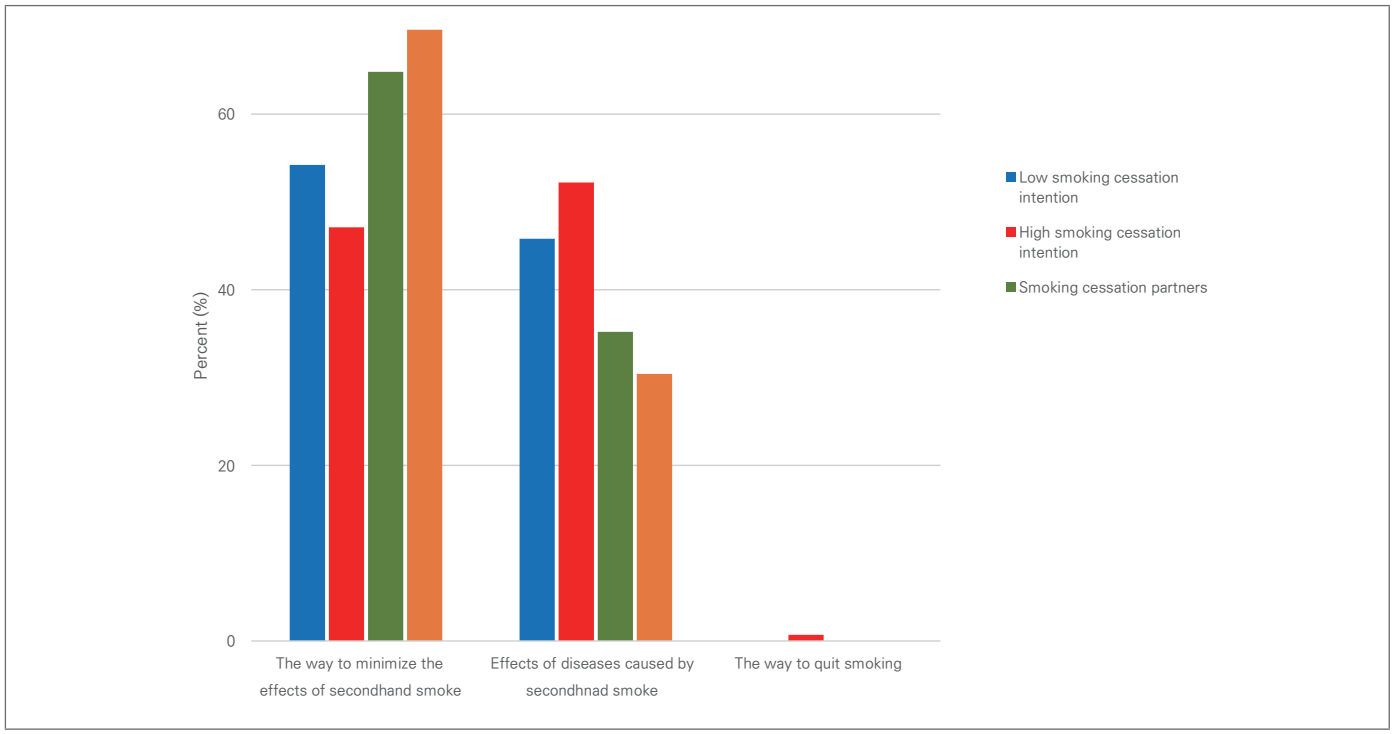


Figure 4. The preference of each participants regarding receiving second-hand tobacco smoke (SHS)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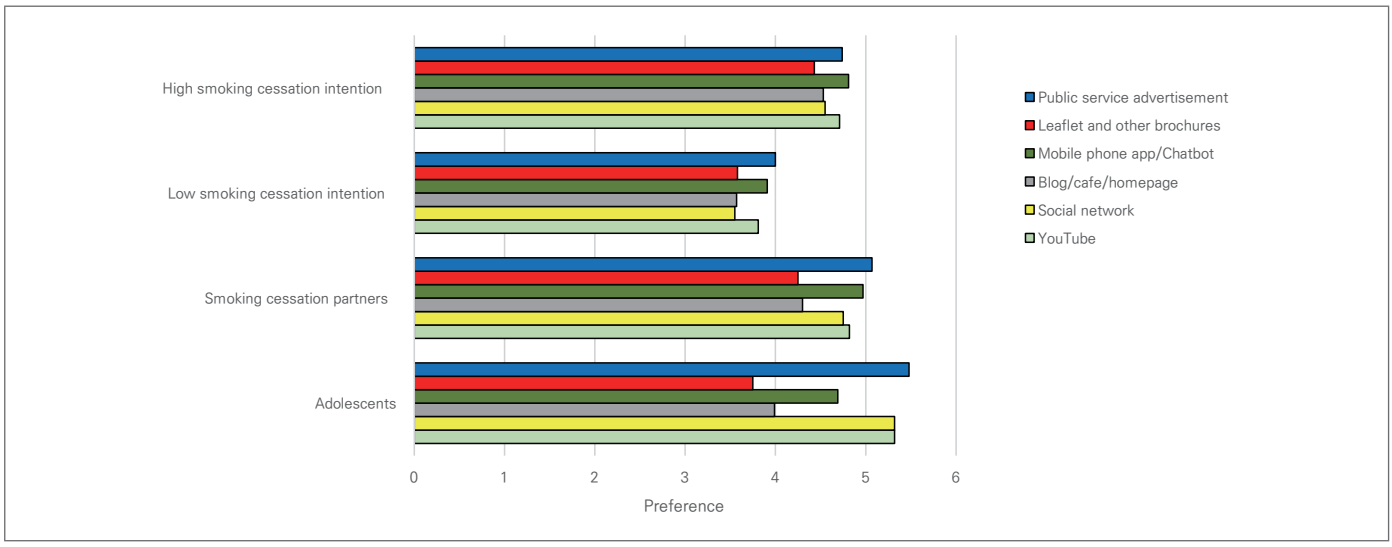


Figure 5. Preferred media sources for receiving smoking cessation information